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3, Vol. 9, No. 3, 403-424

OPEN ACCESS

중학생의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인식명확성 군집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

김 영 미
맘편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 현 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청소년기의 분노표현방식과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각각 우울과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결과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분노억제 단일 혹은 분노표출 단일 요인이 정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서 문제에 대한 인지적 특성과 대처방식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분노 정서 인식의 명확성이 분노 표현방식과 함께 청소년 우울과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인식명확성을 군집화하고, 각 군집에 따라 우울 및 공격성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323명을 대상으로 우울 척도(CES-D), 공격성 척도(AQ-K), 분노표현척도(STAXI-K), 정서인식명확성 척도(TMMS)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모두 우울과 공격성에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분노억제는 정서인식명확성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은 우울과 공격성에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고명확성-저억제형', '고명확성-억제조절형', '분노표출형', '저명확성-조절형',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의 5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졌다. 셋째, ANOVA와 사후검증 결과,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이 다른 군집에 비해 우울과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고명확성-억제조절형'의 경우 다른 군집에 비해 우울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분노표현방식, 우울, 공격성, 정서인식명확성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현수 / 한양대학교 아동심리치료학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교육대학원 / E-mail: hyunsookim1004@daum.net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www.kci.go.kr

청소년은 신체·심리·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로, 이러한 변화들이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정서적인 불안정과 적응상의 여러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 및 학업성취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며(김희숙, 이성희, 2008), 이는 개인적인 욕구나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과학 기술의 발전 및 정보화로 인한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 및 스마트폰 사용 문제들은 가족과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여 더욱 많은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김희숙, 2007).

이 중 분노는 청소년의 우울, 불안, 물질남용이나 공격성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저 요인이라 할 수 있다(구지은, 송현주, 2010). 분노란, 미미한 짜증 혹은 곤혹감으로부터 오는 강한 격분이나 격노까지의 정서 상태를 말하며(Spielberger et al., 1983), 욕구 좌절이나 위협과 같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감정이다(전현숙, 손정락, 2011). 따라서 분노 그 자체로 기능적이라거나 역기능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분노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수 있다(양명희, 김은진, 2007). 그러나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적인 행동이나 정서를 경험할 수 있고(이경순, 한덕웅, 2011; 하정희, 2017; Sharkin, 1988),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지영, 2010). 특히 청소년 시기의 분노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적응 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감정으로(Robert, William, et al., 2011), 낮은 자존감, 불안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뿐 아니라 위험 행동, 폭력, 비행과 같은 행동적 문제들과도 높은 관련이 있다(Hubbard et al., 2007; Kim et al., 2015; Puskar et al., 2008). 또한 또래의 압력이나 자기애적 성격, 자살 경향성 및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Ghanizadeh, 2008; Hernawati, Rahayu, & Soejowinoto, 2015; Munni & Malhi, 2006) 자존감 및 낙관론, 가족지원에 대한 인식들에 대하여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uskar et al., 2008). 아울러 이 시기의 분노 문제가 성인기 대인관계 및 직업기능 유지의 어려움이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도 관련이 높은 바(Lench, 2004), 청소년 초기에 분노의 정서를 대처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후기 청소년기, 나아가 성인기의 사회적, 학업적인 적응 능력의 향상 및 심리적 문제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분노는 일반적인 정서인 반면, 분노표현방식은 분노를 다루는 방식으로, 우울이나 공격성과 같은 부정 정서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분노표현방식은 크게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로 구분하고 있다. 분노조절은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에서 보다 적절히 대처하는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으로 이해되며,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는 분노를 외현화하여 표현한다든지 분노대상을 피하거나 억누른다는 점에서 분노조절과 달리 역기능적인 분노표현방식으로 이해된다(이지영, 2010). 적절한 분노표현의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 외부 환경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게 된다(Eric & Wolfe, 2006). 먼저 분노를 외적으로 분출하는 사람은 타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타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강

www.kci.go.kr

화가 늘어나거나 긍정적인 강화가 줄어들어 우울이나 공격성, 신경증 등을 야기할 수 있고(Lewinsohn, 1974), 유발된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내적으로 억제하는 경우 개인은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Seligman, 1975). 또한 분노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압할수록 절망감을 크게 느껴 부정 정서나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사회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이정숙 외, 2007; Gross & John, 2003). 더불어 김경호(2019)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종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이전 시점의 우울과 공격성이 이후 시점의 우울과 공격성을 안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정서 행동 문제 유병률이 급증함을 감안했을 때,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공격성, 분노에 대해 함께 다루는 것은 후기 청소년기의 정서 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 및 예방 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울은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로, 침울함, 실패감, 상실감, 무가치감 등을 나타내는 정서이며(Beck et al., 1974), 많은 경우 청소년기에 유병률이 급증하거나 첫 우울 삽화를 경험한다(Giaconia et al., 2000). 분노억제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Seligman(1975)은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은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결국 분노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여 우울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순과 한덕웅(2011)은 분노억제가 우울감과 절망감을 야기하여 부정 정서나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사회적 적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이훈진(2000)은 분노억제가 우울의 예언변인임을 시사하였다. 분노표출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분노를 표출하는 정도가 높은 사람 역시 타인과의 갈등 및 부정적인 강화가 잦아져 결과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서송이, 2001; Terasaki et al., 2009).

공격성은 타인에게 상해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련의 행동(Dollard et al., 1939) 혹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 또는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거나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Averill, 1983)로 볼 수 있다. Kaufmam(1972)은 공격성을 수동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자기파괴적 공격으로 분류하였고 Buss와 Durkee(1957)는 공격성을 종류에 따라 폭행과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고 원한과 의심을 합하여 적의성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공격성은 파괴적인 행동에서부터 신체적인 가해나 악의를 품는 언어적, 신체적 행동 등의 욕구 내지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주지영, 2005). 분노 관련 장애는 분노감이나 공격성이 주요 유발 요인이며, 공격성은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을 경험한 후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서수균, 권석만, 2002). 내적 정서인 분노가 강해지면 외현적 공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오장건, 2010; Rule & Nesdale, 1976) 위험이 더 높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Kim-Spoon et al., 2015). 분노표현방식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원활한 경우 공격성이 적게 나타나며(김진영, 2010) 반대로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할수록 간접적인 공격성 뿐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www.kci.go.kr

난폭한 말씨 혹은 행동과 같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노가 표현되는 경우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분노의 감정을 더욱 쉽게 느끼거나 공격성이 심화될 수 있다(김희숙, 이성희, 2008; 주지영, 2005). 특히 청소년기는 욕구 충족의 좌절 등 부정적인 감정 및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성인에 비해 더욱 쉽게 공격행동과 폭력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학교폭력이나 비행 등 청소년 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오장건, 2010; Caspi et al., 1993). 또한 공격성은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Huesmann & Eron, 1984), 청소년 초기에 분노표현을 적절히 다루는 것은 공격성과 관련한 외현화 문제 행동 발생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Spielberger의 분노표현척도(STAXI-K)가 자주 인용되며,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적 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는 억제를 주로 사용하는 분노-억제형(anger-in), 표출을 주로 사용하는 분노-표출형(anger-out), 분노 상황을 적응적으로 조절하는 분노-조절형(anger-control)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분노억제가 우울에 주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와(김미란, 2001) 분노 유발대상에게 분노를 억제시켰다가 보복당할 염려가 없는 대상에 공격을 가해 결국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있다(박근희, 정은정, 2018).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종희(2003)의 연구에서는 분노억제 수준이 높은 사람과 분노억제 수준이 낮은 사람 사이에 우울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억제 수준이 높을 때 공격성도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나다. 우울과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울이나 공격성이 분노-억제형에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와 분노-표출형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으며(김희숙, 이성희, 2008; 이훈진, 2000) 우울과 품행 문제를 모두 나타내는 청소년들의 경우 분노억제와 표출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있다. 이와 같은 혼재된 연구결과들은 분노표현방식 자체만을 정신건강문제의 직접적 요인으로 보는 것의 한계와, 분노억제와 표출을 양분화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황선주, 박기환, 2014). Spielberger의 척도 연구(1985;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에서 재인용)에서도 분노 억제와 분노 표출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독립적인 차원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한 개인에게도 분노의 표출과 억제가 동시에 높거나 낮을 수 있거나 조절과 억제가 동시에 높거나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노표현방식을 군집화하는 연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단일 요인이 아닌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우울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의 군집화하여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중에 어떠한 요인들이 우울 정도에 함께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기수, 하정희(2018)의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을 군집화하여 우울과 공격성, 부정 정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억제 및 표출적 분노조절형 집단(분노조절, 억제, 통제가 모두 높음), 분노억제 및 표출형 집단(분노조절이 낮고 억제와 통제가 높음), 분노처리 미숙형

www.kci.go.kr

집단(분노조절, 억제, 표출이 모두 낮음), 표출적 분노조절형 집단(분노조절과 표출이 높고 억제는 낮음)의 네 집단으로 군집화한 바 있다. 이 중 표출적 분노조절형 집단은 우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적응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높더라도 분노표출이 높으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여 우울 정서가 유의미하게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분노처리 미숙형 집단은 공격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분노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오히려 공격성이 크게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분노표현방식을 군집화하여 분노표출과 억제가 모두 높거나 낮은 개인이 존재함을 시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노조절을 잘한다고 해서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였는데, 분노조절이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이며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이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임을 고려할 때 세 요인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군집이 나타난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없다. 또한 김혜원, 이지연(2019)는 후기 학령기 아동 대상 연구에서 분노조절에 정서인식명확성이 중요한 선행요인이 된다고 하였고, 신정미, 조성호(2014)는 성인 대상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분노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역시 분노표현방식에 있어 정서조절의 인지적 요인인 정서인식명확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우울과 공격성을 이해함에 있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한 후 분노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하거나 억제하는 정서적인 유연성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군집화에 있어 정서인식명확성 요인을 추가하여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울과 공격성에 있어 분노표현방식의 보다 복합적인 작용 기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인 정서인식명확성(조소현, 2004)의 영향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교육, 치료적 개입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서인식명확성(emotional clarity)이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능력으로, 정서 정보처리 과정의 기초이다(Swinkels & Giuliano, 1995). 이는 효과적인 정서조절의 인지적 전략으로(조소현, 2004; Swinkels & Giuliano, 1995) 정서중심치료(emotional focused therapy)의 창시자인 Greenberg(2002)는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정서를 제대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Mayer와 Stevens(1994)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고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립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정서인식명확성은 생활사건에 대한 대처 및 회복 능력, 정서적 문제 예방 등에 있어 긍정적인 인지적 정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임전옥, 2003).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은 진로의사결정, 적응적인 생활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관련이 있으며(김민아, 권경인, 2008; 신아영 외, 2010; 전미애, 김정모, 2011) 스트레스나 우울을 관리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오예람, 송원영, 2022; 이서진, 2015)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Goldman et al., 1996). 따라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자기 파괴적

www.kci.go.kr

행동은 적고 자기 조절력과 같은 적응적 기제들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조소현, 2004). 청소년의 경우에도 정서인식명확성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예은, 송원영, 2017)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공격성 및 비행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임인섭, 2006). 그러나 청소년기에 자주 유발되는 분노 및 분노표현의 문제에 있어 정서인식명확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이다. 이에 정서인식명확성을 다루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있어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분노억제, 분노표출은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군집화될 것이고, 분노조절은 높은 정서인식명확성과 군집화될 것이다.

가설 2: 각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인식명확성을 군집화하였을 때 각 군집 간 우울과 공격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같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할수록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우울 및 공격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과 경기 지역의 2개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0년 10월 한 달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장 승인을 받은 후 설문에 동의한 학급에 한하여 부모 및 연구대상자 동의서를 배부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를 수락한 348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거나 미응답이 있는 25명의 응답자를 제외하고 32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323명의 학생들 중 남학생은 160명(49.5%), 여학생은 163명(50.5%)이었으며 2학년 학생이 160명(49.5%), 3학년 학생이 163명(50.5%)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소속기관 내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가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전겸구 외(2001)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CES-D 한국판은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극히 드물게(0점)', '가끔(1점)', '자주(2점)', '거의 대부분 그렇다(3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겸구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한국판 공격성 척도(Korean Version of Aggression Questionnaire; AQ-K)

Buss와 Durkee(1957)의 적대감 척도(hostility)를 수정 보완한 공격성 척도(Aggression

www.kci.go.kr

Questionnaire; Buss & Perry, 1992)를 권석만, 서수균(2002)이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다(2점)', '웬만큼 그렇다(3점)', '꽤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져 있다. 권석만과 서수균(200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신체적 공격 .74, 언어적 공격 .73, 분노감 .67, 적대감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된 공격성 문항인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성의 14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합산한 점수를 '공격성'척도로 사용하였다. 내적 합치도는 .81로 나타났다.

분노표현 척도(Korean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전겸구 외(2000)가 Spielberger et al.,(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를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을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거의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거의 언제나 그렇다(4)'로 이루어져 있다. 전겸구 등(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분노조절이 .79, 분노억제가 .73, 분노표출이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분노조절이 .80, 분노억제가 .72, 분노표출이 .82로 나타났다.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Salovey et al,.(1995)가 개발한 특질 상위 기분 척도(Trait Meta- Mood Scale)를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주의' 13문항,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서 개선'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0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점)', '중간이다(2점)', '어느 정도 동의한다(3점)', '정말로 동의한다(4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80, 하위 척도 별 내적 합치도는 주의집중 .69, 명료성 .75, 회복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 명확성의 11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7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척도별로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분노표현방식과 정서인식명확성을 군집화하기 위해 분노표현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점수, 정서인식명확성 점수를 표준화한 후 Hair와 Black에 따른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들 간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www.kci.go.kr

결 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우울과 공격성,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그리고 정서인식명확성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1>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제시하였다.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간 상관은 $r = .26(p < .01)$, 분노 억제와 우울 간 상관은 $r = .29(p < .01)$, 분노억제와 공격성 간 상관은 $r = .23(p < .01)$로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억제와 정서인식명확성 간 상관은 $r = -.13(p < .05)$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과 분노억제 간 상관은 $r = .26(p < .01)$, 분노억제와 우울 간 상관은 $r = .15(p < .01)$, 분노억제와 공격성 간 상관은 $r = .55(p < .01)$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정서인식명확성 간 상관은 $r = -.47(p < .01)$, 공격성과 정서인식명확성 간 상관은 $r = -.13(p < .05)$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분노표현방식 하위요인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군집화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정서인식명확성에 따라 형성되는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각 점수를 표준화한 후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Ward의 방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폭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군집의 수를 5개로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계층적 군집화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 1은 60명(18.58%), 군집 2는 60명(18,58%), 군집 3은 96명(29.72%), 군집 4는 78명(24.15%), 군집 5는 29명(8.98%)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1. 분노조절	-	.09	-.43**	.01	-.10	-.04
2. 분노억제		-	.26**	.29**	.23**	-.13*
3. 분노표출			-	.15**	.55**	-.04
4. 우울				-	.21**	-.47**
5. 공격성					-	-.13*
6. 정서인식명확성						-
M	2.64	2.37	2.13	2.13	2.39	3.20
SD	.54	.56	.58	.64	.70	.58

* $p < .05$; ** $p < .01$.

www.kci.go.kr

군집 1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고 분노억제와 표출이 낮은 집단이며 분노억제의 경우 보다 뚜렷이 낮게 나타나 '고명확성-저억제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분노조절과 억제,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게 나타나 '고명확성-억제조절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3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만이 우세하게 높은 집단으로 '분노 표출형'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높으면서도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아 '저명확성-조절형'으로 명명하였으며, 군집 5는 분노억제와 표출이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은 집단으로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이라 명명하였다(그림 1).

표 2. 분노표현방식, 정서인식명확성 표준화 점수에 따른 최종 군집 분류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Cluster 5
	고명확성 저억제형	고명확성 억제조절형	분노 표출형	저명확성 조절형	저명확성 억제표출형
분노조절	-.14	.34	-.91	.91	.15
분노억제	-1.22	.74	-.08	-.12	1.57
분노표출	-.51	-.49	.81	-.65	1.13
정서인식명확성	.70	.75	-.12	-.74	-.63
빈도 (비율)	60명 (18.58%)	60명 (18.58%)	96명 (29.72%)	78명 (24.15%)	29명 (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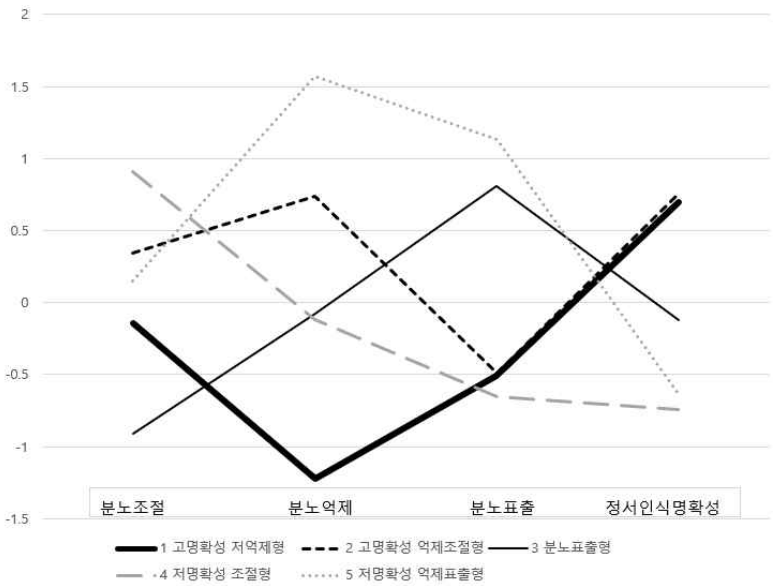

그림 1. 군집 별 분노표현방식

www.kci.go.kr

군집 별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

분노표현방식 군집에 따른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과 공격성 각각에 대한 ANOVA test를 실시한 결과, 우울에 대해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 = 18.07, p < .001), 공격성에 대해서도 군집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1.94, p < .001). 다음으로 어떤 군집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군집 5인 '저명확성-억제표출형'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우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군집 4인 '저명확성-조절형', 군집 3인 '분노표출형', 군집 2인 '저명확성-억제조절형', 마지막으로 군집 1인 '고명확성-저억제형' 집단이 가장 낮은 우울을 나타냈다. 공격성의 경우 군집 5인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집 3인 '분노표출형' 집단이, 군집 4, 2, 1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공격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군집 별 준거 변인에 대한 ANOVA 및 사후검증

준거 변인	고명확성 저억제형	고명확성 억제조절형	분노 표출형	저명확성 조절형	저명확성 억제표출형	F	사후 검증
	M(*SD*)	*M*(*SD*)	*M*(*SD*)	*M*(*SD*)	*M*(*SD*)		
우울	1.69(.39)	1.93(.65)	2.23(.55)	2.33(.69)	2.59(.71)	18.07***	5>4>3>2>1
공격성	2.08(.50)	2.17(.60)	2.67(.60)	2.21(.66)	3.12(.83)	21.94***	5>3>4,2,1

1 고명확성-저억제형, 2 고명확성-억제조절형, 3 분노표출형, 4 저명확성-조절형, 5 저명확성-억제표출형;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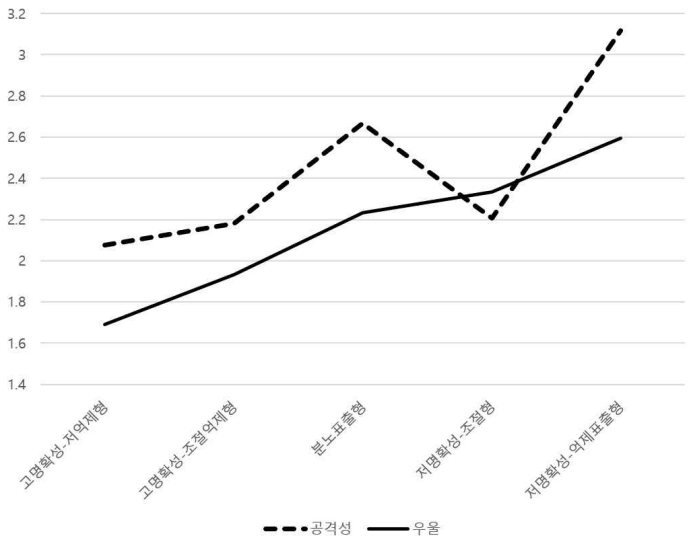

그림 2. 군집별 우울과 공격성

www.kci.go.kr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과 정서인식명확성 군집에 따라 우울과 공격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정서인식명확성의 네 가지 변인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ANOVA test를 통해 각 군집 간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변수별 상관분석 결과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우울 및 공격성, 분노표출과 우울 및 공격성, 우울과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정서인식명확성과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우울, 공격성이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모두 우울과 공격성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것은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 우울감과 절망감을 일으킨다는 이경순과 한덕웅(2011)의 연구와 분노를 지나치게 표출하는 것이 공격성이나 우울감, 신경증을 유발한다는 이정숙 외(2007), 분노억제, 분노표출, 우울과의 관련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박근희와 정은정(20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Spielberger의 척도 연구(1985;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에서 재인용)에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함께 높을수도, 다른 양상을 보일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서인식명확성은 분노억제와는 부적 상관이 있는 반면 분노표출 및 분노조절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수진(2017)의 연구에서 분노억제와 표출 모두 낮은 정서인식명확성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 및 성인 대상 연구에서 분노조절과 정서인식명확성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던 신정미와 조성호(2014)의 연구와 불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 대상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과 분노표출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오현아(2015), 윤자영(2018)의 결과와는 일치하는바 명확한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울과 공격성은 각각 정서인식명확성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는 김예은과 송원영(2017)의 연구,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임인섭(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바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할수록 우울 정서 및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분노조절은 우울, 공격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분노조절에 있어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김혜원, 이지연, 2019; 신정미, 조성호, 2014). 선행연구들이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조절과 정서인식명확성의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분노표현방식의 하위요인과 정서인식명확성을 군집화한 결과 다섯 개의 집단으로 군집이 나누어졌다.

먼저 군집 1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고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낮게 나타나 '고명확성-저억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고 부적응적인 방식인 분노억제가 뚜렷하게 낮고 분노표출 역시 낮게 나타났다.

www.kci.go.kr

따라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은 적게 사용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군집 2는 정서인식명확성과 분노조절, 분노억제가 높게 나타나‘고명확성-억제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지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주로 참거나 조절하고자 하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집 3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만이 높게 나타나 ‘분노 표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은 분노억제와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에 가까운 반면 적응적인 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낮게 나타났는데, 화가 나는 상황에서 조절하지 못하고 주로 언어나 신체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집 4는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은 집단으로‘저명확성-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군집 5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모두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은 낮게 나타나 ‘저명확성-억제표출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도, 적응적으로 조절하지도 못하는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정희, 정기수(2018)의 연구 결과와 차이점 및 유사점을 모두 가진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이 모두 높거나 낮은 집단이 나타났던 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집단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분노조절과 분노표출이 높고 분노억제가 낮은 군집이 나타났던 걸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분노조절과 분노억제가 높고 표출이 낮은 집단이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동시에 높은 집단이 나타난 점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분노표현방식의 사용에 있어 한 가지만을 우세하게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군집이 존재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정서인식명확성 변인을 분노표현방식과 함께 군집화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므로 비교나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모두 높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저명확성-억제표출형’, 분노억제와 표출이 낮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은 ‘고명확성-저억제형’집단이 나타난 것은 정기수, 하정희(2018)의 연구에서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과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이 같은 군집에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분노조절에 선행한다는 연구 결과(김혜원, 이지연, 2019; 신정미, 조성호, 2014)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정서인식명확성 요인을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을 감소시키며 분노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신정미와 조성호(2014), 장정주(2012)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조절이 높으면서도 정서인식명확성은 낮은‘저명확성-조절형’집단이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화가 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서인식이 높은 개인이 부적절한 정서조절 및 표현을 할 가능성은 낮으나 정서인식이 낮은 개인이 적응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가능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www.kci.go.kr

셋째, 각 군집에 대한 우울과 공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군집 5인'저명확성-억제표출형'에서 우울과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노를 억압할수록 우울감과 절망감을 일으키며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에도 타인과의 갈등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들과(서송이, 2001; 이경순, 한덕웅, 2011; 이훈진, 2000)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거나 반대로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공격성이 더욱 심화된다는 연구 결과들(김희숙, 이성희, 2008; 주지영, 2005)을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우울과 품행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분노억제와 표출이 모두 높다는 황선주와 박기환(2014)의 연구와 같이 내적으로 분노를 억제하였다가 부적절한 상황에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 및 공격행동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박근희, 정은정, 2018). 또한 이 군집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개인이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이 긍정적인 인지적 조절 전략이 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윤자영, 2018; 오현아, 2015; 이수진, 2017).

다음으로 군집 4인 '고명확성-조절형'집단의 경우 우울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격성의 경우 낮게 나타났다. 이 집단의 우울 수준이 높았던 것은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감이 높을 수 있으며, 정서인식명확성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예은, 송원영, 2017). 반면 공격성의 경우 '고명확성-억제조절형' 및 '고명확성-저억제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낮게 나타났는데,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을수록 공격성 및 비행 행동이 증가한다는 임인섭(2006)의 연구와는 불일치하나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이 공격성을 낮춘다는 김진영(2010)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성인보다 더욱 쉽게 공격행동과 폭력이 유발되어 부적응문제로 이어진다는 연구들(오장건, 2010; Caspi et al., 1993)과도 맥을 함께 하는바 청소년의 공격성에 있어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 뿐 아니라 적절하게 분노를 조절하도록 하는 것이 공격성이나 부적응행동의 예방에 중요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군집 3인 '분노 표출형'의 경우 공격성이 두 번째로, 우울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노표출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갈등이 발생, 부정적인 강화가 높아져 우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및 분노표출이 공격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서송이, 2001; 주지영, 2005; Terasaki et al,. 2009). 또한 군집 5에서 분노조절이 낮았던 것과 관련하여, 분노조절에 실패한 경우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공격적인 행위의 전조가 된다는 허은순(2003)의 주장을 지지하는바 청소년들의 분노조절능력 훈련이 공격성의 중요한 예방 요인일 수 있음이 반복적으로 시사된다(안정미, 2013).

마지막으로 군집 1인 '고명확성-저억제형'과 군집 2인 '고명확성-억제조절형'의 경우 우울과 공격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높은 정서인식명확성과 분노조절이 낮은 우울과 공격성에 관련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시사하였다. 한편 '고명확성-저억제형'보다 '고명확성-억제조절

www.kci.go.kr

형'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평소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만 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참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내면에 분노감을 간직한 결과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경순, 한덕웅, 2011). 그러나 군집 2에서 우울 및 공격성 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인의 경우 미국인에 비해 분노-특질 차원에서는 유의미하게 높으나 분노-반응 측면에서는 낮게 나타난다는 전겸구 외(2000)의 연구와 같이, 화가 나더라도 이를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우울과 공격성과 관련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노표현방식을 군집화함으로써 개인의 분노표현방식이 반드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정기수, 하정희, 2018) 높은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낮은 분노억제를 보인 집단에서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이 모두 낮은 집단에서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높은 집단에서 우울과 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 정서인식명확성이라는 인지 요인을 군집분석에 포함함으로써 이전에 분노표현방식과 우울,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의 일치성을 더욱 높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라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양상의 개인들이 우울과 공격성에 가장 취약함을 시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방식과 우울, 공격성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정서의 인지적 요인인 정서인식명확성과의 관계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높은 정서인식명확성을 가지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군집 4인 '저명확성-조절형'과 같이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치료적 상황에서 청소년의 분노 및 우울을 다룸에 있어, 분노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하였다. 반면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분노표출을 조절하거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함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역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우울과 더불어 군집 5인 '저명확성-억제표출형'의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억제와 표출을 동시에 사용이 낮고 정서인식명확성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공격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정서인식명확성이 낮더라도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저명확성-조절형'에서 공격성이 낮은 지표를 보인 것, '저명확성-억제표출형', '분노 표출형'과 같이 분노표출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언어 및 신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은 난폭한 말씨 혹은 행동과 같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노가 표현되는 경우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성인에 비해 분노의 감정을 더욱 쉽게 느끼거나 공격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김희숙과 이성희

www.kci.go.kr

(2008), 주지영(2005)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분노특성에 따라,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출하는 청소년의 치료적 장면에서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 뿐 아니라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개입 또한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수집 절차에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수집과정 상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하였기에 전체 중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반응자의 성향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왜곡된 결과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에 연구변인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의 경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척도로, 청소년의 특성상 자신의 정서인식명확성 정도의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울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연구자 감독하에 진행하는 개인 면담, 행동 관찰, 실험 설계 등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공격성을 언어 및 신체적 공격성으로 한정하여 살펴본 결과 적대감, 관계적 공격성, 부정성, 흥분성 등의 정서적 요인을 포함한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차이가 적었던 점을 감안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차이 등 보다 구체화된 연구 설계를 통해 명확한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곽효정, 강상준 (2020). 청소년 우울이 인터넷 게임중독과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시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11(2), 581-596.
http://dx.doi.org/10.22143/HSS21.11.2.40

구지은, 송현주 (2010). 청소년의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에 대한 연구 현황 및 향후 방향 제시. 심리치료학회, 10(2), 137-155.
http://www.riss.kr/link?id=A82690429

김경호 (2019).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39(3), 239-279.
http://www.riss.kr/link?id=A106382247

김미란 (2001). 고등학생의 분노수준과 분노표현 양식에 따른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 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891590

김민아, 권경인 (2008). 적응 유연한 청소년의 정서인식 명확성과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6, 15-32.
http://dx.doi.org/10.35151/kyci.2008.16.1.002

김예은, 송원영 (2017). 청소년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4), 1075-1093.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5998

www.kci.go.kr

김지혜 (201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을 매개로 학업성적과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3(1), 65-72.
http://dspace.kci.go.kr/handle/kci/1223827

김진영 (2010). 청소년의 열등감과 공격성 간 관계에서 지각된 정서적 유능성과 분노 통제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25-746.
http://doi.org/10.17315/kjhp.2010.15.4.010

김혜원, 이지연 (2019). 학령후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정신인식 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5, 135-157.
http://doi.org/10.20993/jSSW.45.6

김희숙 (2007). MMTIC 활용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존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1), 85-94.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722941481167.pdf

김희숙, 이성희 (2008). 실업계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19(2), 270-279.
http://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63885

류정림, 홍소형 (2019).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융합요인: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9(8), 180-188.
http://doi.org/10.22156/CS4SMB.2019.9.8.180

박근희, 정은정 (2018). 고등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우울의 관계: 분노표출, 분노억제,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5(4), 43-66.
http://doi.org/10.34244/fy.2018.15.4.43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21(2). 487-501.
http://doi.org/10.15842/kjcp.2002.21.2.015

서송이 (200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분노표현방식 및 우울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7963043

신수림, 이홍직 (201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웰니스학회, 14(2). 309-316.
http://doi.org/10.21097/ksw.2019.11.14.4.309

신아영, 김정호, 김미리혜 (2010). 정서 마음챙김이 여자 대학생의 정서인식의 명확성, 인지적 정서 조절과 스트레스 및 웰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 635-652.
http://dx.doi.org/10.17315/kjhp.2010.15.4.004

신정미, 조성호 (2014). 정서인식 명확성과 분노표현방식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인간 이해, 35, 129-14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Orte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53818

신종희 (2008). 분노 수준과 분노 표현 양식에 따른 우울, 불안, 공격성의 차이: 여중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doi.org/10.16983/kjsp.2009.6.2.213

안정미 (2013). 청소년들의 분노조절능력 및 공격성에 미치는 분노경험영역과 분노반응전략의 영향.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

www.kci.go.kr

과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3347232

양명희, 김은진 (2007). 청소년의 분노와 자기개념 명확성, 성격 특성과의 관련성 탐구. 한국 청소년학 연구, 18(1), 163-184.
http://www.riss.kr/link?id=A104555922

오예람, 송원영 (2022). 정서인식명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와 자기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2(1), 21-40.
http://doi.org/10.33703/cbtk.2022.22.1.21

오장건 (2010). 고교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양식 및 공격성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A82638994

오현아 (2015). 성인의 지각된 부모양육이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 인지적 정서조절의 연속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A107965243

윤자영 (2018).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분노표현양식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A107141081

이경순, 한덕웅 (2011). 분노경험의 억제와 인지적 해석이 상태분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논문집, 406.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8354

이경은 (2011). 내외향성과 분노표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조절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s://www.academia.edu/9156299/

이서진 (2015).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정정서를 통한 심리적 수용의 매개된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doi.org/10.17315/kjhp.2016.21.2.006

이수연 (2016). 아동·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논문을 메타분석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6682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https://accesson.kr/ksppa/v.11/1/95/25510

이수진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대학생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 명확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doi.org/10.33770/JEBD.36.2.9

이정숙, 권영란, 김수진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와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1), 32-40.
http://uci.or.kr/G704-001695.2007.16.1.006

이지영 (2010). 역기능적 분노의 조절을 위한 Siegel의 대인 신경 생물학적 모형에 기반한 절충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doi.org/10.17315/kjhp.2011.16.2.001

이훈진 (2000).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27-43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0893

임인섭 (2006). 초기 청소년의 정서능력과 뇌정보처리 특성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www.kci.go.kr

영향. 한국감성과학회: 감성과학, 9(4), 307-319.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372.2006.9.4.007&res_svc_cd=

임전옥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523.2003.15.2.006&res_svc_cd=

장정주 (2012). 정서자각과 정서표현이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 장애연구, 28, 147-17.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501.2012.28.1.008&res_svc_cd=

전겸구, 김교헌, 류준범 (2000). 한국인과 미국인의 분노 경험과 분노 표현. 한국재활심리학회, 7(1), 61-75.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Experience-and-Expression-of-Anger-in-Korean-and-%EC%A0%84%EA%B2%B8%EA%B5%AC-%EA%B9%80%EA%B5%90%ED%97%8C/2a87b6c8c192fd423735945517231cc700f809ee

전겸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 - K) 개발 연구: Ⅳ. 한국미술치료학회, 7(1), 33-50.
http://www.newnonmun.com/article=24559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http://accesson.kr/healthpsy/v.6/1/59/27362

전미애, 김정모 (2011).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가 청소년 수형자의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 63-78.
http://accesson.kr/healthpsy/assets/pdf/18908/journal-16-1-63.pdf

전현숙, 손정락 (2011). 역기능적 분노표현 및 비합리적 신념과 마음챙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377-396.
http://www.kci.go.kr/handle/kci/1509984

정기수, 하정희 (2018).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 군집에 따른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의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2), 480-490.
http://doi.org/10.5762/KAIS.2018.19.12.480

정민경 (2011). 초등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불안 및 우울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12708622

조소현 (2004). 정서강도와 정서인식의 명확성이 자기 파괴적 충동 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식 행동과 중독적 인터넷 사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T9742709

주지영 (2005). 고등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우울 및 공격성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A77039992

하정희 (2017). 청소년의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24(6), 105-126.
http://www.riss.kr/link?id=A104561010

하정희, 정기수 (2018).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 군집에 따른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의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 19(12), 480-490. http://doi.org/10.5762/KAIS.2018.19.12.480

허은순 (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www.riss.kr/link?id=A79803285

황선주, 박기환 (2014). 우울-품행장애성향 청

www.kci.go.kr

소년의 전위 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25-1144. http://doi.org/10.17315/kjhp.2014.19.4.013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45-1160. http://doi.org.10.1037/0003-066X.38.11.1145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Blum, R. W,, & Qureshi F. (2011). *Morbidity and mortality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http://doi.org/10.1037/h0037562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http://doi.org/10.1037/h0046900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 – 459. http://doi.org/10.1037//0022-3514.63.3.452

Caspi, A., Lynan, D., Moffitt, T. E., & Silva, P. A. (1993), Unraveling girls delinquency: Biological, dispositional and contextual contributions to adolescent mis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30. https://faculty.washington.edu/matsueda/courses/401D/Readings/Caspi%201993.pdf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 Yale University Press. http://doi.org/10.1002/9781119057574.whbva040

Ghanizadeh A. (2008). Gender difference of school anger dimensions and its prediction for suicidal behaviour in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Health Psychology, 8*, 525-535. http://www.redalyc.org/pdf/337/33712001012.pdf

Giaconia, R. M., Reinherz, H. Z., Hauf, A. C., Paradis, A. D., Wasserman, M. S., & Langhammer, D. M. (2000). Comorbidity of substance us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0*(2), 253 – 262. http://doi.org/10.1037/h0087634

Goldman, S. L., Kraemer, D. T., & Salovey, P. (1996). Beliefs about mood moderate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illness and symptom reporting.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41,* 155-128. http://doi.org/10.1016/0022-3999(96)00119-5

Greenberg, L. S. (2002). Integrating an emotion-focused approach to treatment into psychotherapy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2*, 154-189. http://doi.org/10.1037/1053-0479.12.2.154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 – 362. http://doi.org/10.1037/0022-3514.85.2.348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Grim,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 American Psychological

www.kci.go.kr

Association, 147-205.
http://psycnet.apa.org/record/2000-00427-000

Hernawati L., Rahayu E., & Soejowinoto P. (2015). The predictors of Indonesi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nger at school.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6*(23), 108-119.
http://files.eric.ed.gov/fulltext/EJ1079035.pdf

Hubbard, J. A., McAuliffe, M. D., Rubin, R. M., & Morrow, M. T. (2007). Anger, aggression, and interventions for interpersonal violence. In T. A. Cavell & K. T. Malcolm, (Eds.). *The anger – aggression relation in violent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67-280). Lawrence Erlbaum.
https://doi.org/10.4324/9781003417989

Huesmann, L. R., & L. D. Eron. (1984). Cognitive processes and the persistence of aggressive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10*, 243 – 251.
http://doi.org/10.1002/1098-2337(1984)10:3<243::AID-AB2480100308>3.0CO;2-6

Kaufmamn, L. M., & Wagner, B. R. (1972). BARB: A systematic treatments technology for temper control disorders. *Behavior Therapy and Research, 1*, 331-341.
http://doi.org/10.1016/S0005-7894(72)80054-6

Kim-Spoon J., Holmes C., & Deater-Deckard K. (2015). Attention regulates anger and fear to predict changes in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 756-765.
http://doi.org/10.1111/jcpp.12338

Lench, H. C. (2004). Anger management: diagnostic differences and treatment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4), 512-531.

Lewinsohn, P. M. (1974). A behaviou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J. Freedman, & M. Katz, (Ed.),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pp. 157-174). Wiley.
https://doi.org/10.1521/jscp.23.4.512.40304

Mayer, J. D., & Stevens, A. A. (1994). An Emerging Understanding of the Reflective (Meta-) 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 351-373.
http://doi.org/10.1006/jrpe.1994.1025

Munni, R., Malhi, P., (2006). Adolescent violence exposure, gender issues and impact. *Indian Paediatrics,* 43(7):607-612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6894751_Adolescent_violence_exposure_gender_issues_and_impact

Perls, F. S. (1973). *The Gestalt approach & eye witness to therapy.* Science and Behavior Books.
http://www.goodreads.com/book/show/460902.The_Gestalt_Approach_and_Eye_Witness_to_Therapy

Puskar, K. Ren, D., Bernardo, L. M., Haley, T, & Stark, K. H. (2008). Anger correlated with psychosocial variables in rural youth.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31*(2), 71-87.
http://doi.org/10.1080/01460860802023513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 – 401.
http://doi.org/10.1177/014662167700100306

Robert W., William H., & Qureshi F. (2011). *Morbidity and mortality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http://www.yhp.astrazeneca.com/content/dam/you

www.kci.go.kr

ng-health/Resources/Publications/Morbidity-and-Mortality-among-Adolescents-and-Young-Adults-in-the-United-States.pdf

Rogers, C. (1961). *On becoming a person.* http://doi.org/10.1080/095150899105945

Rule, B. G., & Nesdale, A. R. (1976). Emotional arousal and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3*, 851-863. http://doi.org/10.1016/j.avb.2011.09.006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122-154. http://doi.org/10.1037/10182-006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W. H. Freeman. https://doi.org/10.1192/S0007125000042616

Sharkin, B. S. (1988). The measurement and treatment of client anger cou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8). 361-365. https://doi.org/10.1002/j.1556-6676.1988.tb00887.x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research ed.). Tamp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https://doi.org/10.1002/9780470479216.corpsy0942

Spielberger, C. D. (1995). *State-Trait Depression Scales* (Form X-1). Mind Garden. http://doi.org/10.1080/10615800290028422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pp. 161-189).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ttps://www.taylorfrancis.com/chapters/edit/10.4324/9781315825656-7/assessment-anger-state-trait-anger-scale-spielberger-jacobs-russell-crane

Swinkels, A., & Giuliano, T. A. (1995). The measurement and conceptualization of mood awareness: Monitoring and labeling one's mood sta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934-949. https://doi.org/10.1177/0146167295219008

Terasaki, D. J., Gelaye, B., Berhane, Y., & Williams, M. A. (2009). Anger expression, violent behavior,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male college students in Ethiopia. *BMC Public Health, 9*, 13. http://doi.org/10.1186/1471-2458-9-13

Wolfe, DA. & Eric. (2006).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research and practice.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es in adolescents. Guilford Press, 3-20. http://doi.org/10.5409/wjcp.v7.i1.9

원고접수일 : 2023. 02. 27.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4. 21.
게재확정일 : 2023. 04. 26.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3, Vol. 9, No. 3, 403-424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aggression According to Adolescents'Anger Expression Style and Emotional Clarity Cluster

Kim, Youngmi
Department of
Mompyunhan Psychiatric Hospital

Kim Hyunsoo†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uster the anger expression style and emotional clarity and identify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between the cluster. A self-report system survey was conducted to support this study. Respondents for this survey were 323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and the survey includes questions on the Depression Scale (CES-D), Aggression Scale(AQ-K), Anger Expression Scale(STAXI-K), and the Emotional Perception Clarity Scale(TMMS). A correlation analysis was first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ggression, anger expression style, and emotional clarity. Then, a secondary clustering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hair and black of survey respondents. This secondary clustering analysis was performed after standardizing the scores of anger control, anger suppression, and anger expression, emotional clarity. An ANOVA test and post hoc analysi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 between depression and aggression among clust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anger suppression and anger express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aggression, and anger suppress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clarity. Depression and agg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clarity, respectively. Second, the anger expression methods were divided into following five groups: Cluster 1_'High Clarity-Low Suppression', Cluster 2_'High Clarity-Suppression and Regulation', Cluster 3_'Anger Expression', Cluster 4_'Low Clarity-Regulation', Cluster 5_'Low Clarity-Repression and Expression'. Third, the ANOVA test revealed that the Cluster 5 showed the highest depression and aggression than all other clusters and Cluster 1 showed significantly lower rate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than any other cluster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findings.

Key words : anger experssion style, depression, aggression, emotional clarity

† Corresponding Author : Kim Hyunsoo /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 222, Wangsipri Ro, Sung-dong gu, Seoul / Tel. 02-2220-1658 Fax. 02-2293-1185 / hyunsookim1004@daum.net

www.kci.go.kr